

# 中國 國境 開放市 훈춘의 開發 展望

UNDP의 豆滿江 上流 開發과 관련하여

이학박사 신홍전문대학교수 (학 회 학 술 이 사) 김 추 윤

## 1. 훈춘의 地理的 背景

훈춘시는 中國 國境 開放市로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동남부의 豆滿江 下流 地域인 中國, 러시아, 北韓의 3국경이 접경하는 금삼각 지구에 위치하고 있다. 동으로는 훈춘령이 러시아 하산구와 접하고 중,러 國境 길이는 232.7km 이다. 서,남에는 豆滿江을 사이에 두고 北韓의 온성, 새별, 선봉, 은덕의 4개郡이 바라 보이고 中,北韓간의 國境 길이는 164.7km 이다.

훈춘은 동, 서, 북쪽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 최고 해발 1,147m 를 이르며 최저는 방천촌으로 해발 5m 이다.

서남부의 지형은 평탄하여 훈춘, 춘화, 경신 등 분지평원 면적은 500km 에 이른다. 氣溫은 온난 습윤하며 해양성기후의 영향으로 비교적 맑고 뚜렷하며 연강수량은 619mm , 연평균기온은 5.5℃ , 무상기간은 140-160 일이다.

이곳의 자연자원은 풍부한데 금, 석탄, 석회석, 수정, 물, 토지 자원이 주요 자원이다.

토양이 비옥하여 농목축업이 발달되었다.

交通은 圖們市를 거쳐 연길시와 통하며 연길 공항까지는 115km 이다.

61km의 圖們-훈춘간 2급 도로가 이미 1989년에 건설되었고 65km 의 圖們-훈춘간 철도는 건설 중에 있는데 금년말에 개통될 예정이다.

훈춘시에서 러시아와 접한 훈춘 하구의 14km에 이르는 2급도로는 이미 건설되었고 또 훈춘시에서 훈춘 하구 장령자에 이르는 17km 의 철도는 그 건설이 시작되었다.

훈춘시에서 北韓과 접한 사타 지하구까지의 3급 도로도 연내 건설이 가능하다. 120개의 소도로가 이미 개통되었고 6천대의 전화가 금년 9월에 개통될 예정이므로 전세계와 국제통화가 가능할 것이다.

훈춘의 국경 무역은 활발하다. 이미 년 삼십만톤의 훈춘 하구 기반시설이 건설되고 있어 이의 완성후에는 화물량이 년 60 만톤으로 늘어날것이다.

사타자 하구는 년 이십만톤 규모의 화물 수송이 가능하다. 훈춘 세관은 그 업무를 시작했고 국경 상호간 무역시장이 건설중에 있다.

1991년 국경무역 수출액이 2.9억원(원=한화 약 130원)에 이르러 1990년도 대비 162 %증가 되었다.

국경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훈춘시의 관광산업도 발전하고 있다. 北韓과 이미 일일 관광이 시작되어 작년에 5천 7백명의 관광객이 있었으며 러시아로의 3일 관광도 현재 추진되고 있다.

훈춘 최남단 방천토자페에서 豆滿江 하도 끝 동해까지 27km이고 유역면적은 3.3만km<sup>2</sup>인데 中國이 동해로 진출할수 있는 유일한 수상 통로로 러시아, 日本, 韓國, 北韓과 해상 왕래할 수 있는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갖는다.

2차대전 이전에는 훈춘이 동해와 태평양으로 나간 중요한 항구였다. 그 당시는 어선이 최다 1500척, 년간 운송량이 2만 5천 톤에 달했다.

1938년 日本과 러시아 사이에 장고봉 사건 후 일본군이 豆滿江 입구를 봉쇄하여 中國은 항해를 정지당하게 되었다.

훈춘시에서 남쪽으로 약 70km 떨어진 장고봉 밑에 방천마을이 있다. 이 방천에서 5km남쪽으로 더가면 中國 영토 최남단으로 豆滿江 延邊에 방천유원지가 있고, 1886년 靑나라 대표 오대중과 러시아대표 빠라노프가 세운 토자 경계비가 있다.

## 2. 훈춘 개발계획의 내용

UNDP(국제개발계획)는 1991년을 전후로 울란바토르와 평양에서 豆滿江 유역 개발에 관한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豆滿江 삼각지구는 그 중요한 전략적 위치로 보아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다. 이 곳은 中國의 공업성 중에서 길림성, 흑룡강성에 가까워 시장이 넓고 러시아, 北韓, 몽고의 풍부한 노동력과 자연자원이 있고, 日本과 韓國측에서 보아도 유럽과 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지역의 이런 경계의 상호 보완성은 관련 공업 잠재력과 결합하여 豆滿江 삼각지역이 미래의 싱가포르, 홍콩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991년 10월 24일 UNDP 는 뉴욕 총본부에서 서명되어 뉴스발표회를 가졌으며, 이 사실은 전세계에 알려져 국제사회에서 큰반응을 일으켰다.

이후 豆滿江 유역 개발사업이 UN의 중점개발 항목으로 취급되었다. 그 개발내용은 향후 약 20년동안 해당 국가들의 합작개발과 UN의 지지로 약 3백억 달러를 투입하여 豆滿江 1만 km<sup>2</sup>의 삼각지대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 발표후 北韓은 적극적인 태도 표명으로 豆滿江 입구의 웅기, 나진에 621km<sup>2</sup>에 경제 무역특구를 건설하여 물동량 1억톤에 人口 1백만의 항구도시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블라보스톡 지역을 전부 대외에 개방하는 것을 선포하고 몽고도 역시 豆滿江을 경유하여 동해로의 진출을 희망하고 스스로 해상진출의 지름길을 모색하고있다.

中國은 훈춘시를 개방 특구로 내세워 UNDP의 개발 계획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훈춘시 개발은 크게 두단계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다.

첫 단계(1991-1995년)에서는 국경무역과 수출가공업에 힘을 기울이고 국경 경제 합작구를 건설하고, 끊임없이 경제력을 증강시켜 훈춘시로 하여금 기간 설비를 갖추고 국경무역, 수출가공업, 관광업이 발달한 圖境 開放市로 만드는 것이다.

두번째 단계(1996-2000년)에서는 훈춘의 개방과 豆滿江 개발에 중점을 두어 豆滿江내 항구를 확장 건설하여 훈춘으로 하여금 交通이 편리하고, 기간 시설이 갖추어지고 생활 서비스시설을 개선하고 통신망을 발달시켜 현대화된 都市를 만드는 것이다.

길림성 인민정부가 1992년 6월에 펴낸 훈춘의 중점개발항목을 살펴보면 40개의 프로젝트에 대부분 합자 투자 형식을 빌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비타민공장, 통조림공장, 맥주공장, 비누공장, 광천수공장, 가죽공장 등 기초식료 및 의약품 공장에서 댐, 갈탄 기화장치, 탄광개발, 방천 항구 개발 및 어항건설, 철도건설 등 기간 산업까지 다종 다양하다.

이 밖에 관광호텔, 육우기지, 도자기공장, 화강암 석재공장, 정화수처리장 신설 등도 포함되었다.

투자비용은 큰 것은 16,000만元에서 적은 것은 250만元까지 편차가 크다. 40개 프로젝트중 10개가 독자 내지는 합자투자이고, 나머지는 합자투자 방식이다.

특히 개발내용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방천 항구 및 어항 건설 계획이다. 방천은 훈춘 최남단 豆滿江 하안에 있는 곳으로 러, 북, 중국의 삼국이 만나고 러, 北韓 철도가 지나는 곳에 위치한 전략상 중요한 곳이다. 인근에 소련 하산시와 北韓의 豆滿江市가 있다.

현재는 외국인의 출입이 금지되고 내국인에 한해서 방천 유원지를 개방하여 유람선이 운행되고 있는데, 장차 이 곳에 1억1,000만 원을 합작 투자하여 동해까지 17km의 훈춘 開放市의 태평양 전진기지로 삼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이다.

### 3. 훈춘 개발계획의 추진

훈춘에서 豆滿江 지역에 이르는 개발 사업은 中國 중앙정부의 각별한 관심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실제로 1991년 1월과 8월 사이에 中國 중앙당 총서기 강택림, 국무원총리 리붕, 부총리 전기운, 주용기, 등가화 등이 훈춘시를 시찰하고 각종 사업계획을 지시한 바 있다.

中國 정부는 훈춘 지역을 中國, 러시아, 北韓 3국의 개방과 상호이익의 원칙하에 공동 개발을 추구하고 있으며, 주변국과 주변지역의 투자개발도 환영하고 있다.

훈춘시 개발의 기본 추진 방침은 훈춘의 특수한 지리적 위치를 이용하여 장차 국경무역과 국제경제 기술합작을 발전시켜 훈춘이 中國 동북아의 주요 대외 무역창구와 동북아 지역의 중심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훈춘시는 1991년 11월 11일 국무원의 허가로 갑급 개방도시로 되었고 1992년 3월 9일에는 국무원 허가로 대외 개방 국경 도시로 되어서 연해 개방 지구로써 유효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中國 중앙정부의 훈춘시 개발특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여 주는 것이다.

길림성 인민정부는 1992년 훈춘시에 省급에 해당하는 10가지의 경제관리 권한을 부여하여 개발계획과 국경무역, 토지심사권, 세금감면, 수출입허가증, 외국기업에 대한 영업 증명서 발급 등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했다.

길림성 정부는 또 많은 간부와 전문 인원을 훈춘시에 파견하여 개발건설 사업에 협조토록 했으며 동시에 훈춘시가 특혜정책을 펼 수 있는 20가지의 조치를 취했다.

주요한 몇가지 사항을 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훈춘시 관내토지는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고 1차적으로 기업은 1-5km의 토지사용권을 가질 수 있고, 임차기간은 기업의 종류에 따라 50-70 년간으로 할 수 있다.

둘째, 외국기업은 5년동안 거주주택, 기업이 신속한 빌딩이나 새로 구매한 빌딩, 대지에 대해서는 5년동안 재산세를 면제한다.

셋째, 기업생산품의 수출규모가 일정한 한도에 도달하면 국가 허가를 받아서 주변 국가의 수출입 경영권을 갖는다.

넷째, 국내의 투자기업의 소득세는 24%이다. 그러나 시정부는 유효한 방법을 통하여 세금 일부를 반환함으로써 15%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다섯째, 훈춘시 투자를 위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본금을 들이는 중개자(당정기관, 금융부분 종사원 제외)는 투자기간, 이자율에 따라서 1/1,000 - 5/1,000 의 커미션을 보상 받는다.

여섯째, 외국투자기업은 요구된 세금을 완납한 후에는 기업이운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다.

일곱째, 훈춘시 행정 관할 구역내의 기업이나 개인은 은행에 외화를 보유할 수 있다.

여덟째, 국경 경제 합작 지역내에서 기간시설 건설을 위해서 기계설비, 기타 기본 건물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 관세와 물품세를 면제한다.

20가지 특혜 정책속에는 인접 변경국 러시아 등 CIS 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엿보인다. 예를 들면 "특혜 정책중 CIS에 대해서는 노무인원 100인 이하의 합동사업에 대해서 훈춘시가 심사할 수 있게 위탁하고 허가증서를 발급하고省去 보고한다." 라고 되어있다.

#### 4. 훈춘 개발의 전망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가 마침내 이루어져 동북아의 냉전시대가 화해평등에 입각한 경제협력을 통한 공존의 시대로 들어서게 되었다.

세계의 눈이 동북 아세아에 집중되고 있는 이즈음 中國에서는 훈춘 개발 열기가 대단하다. 이미 中國은 1980년대 심천 경제 특구를 비롯하여 中國 남서부 일대를 개방하기 시작하여 이제는 금삼각 지대로 불리는 北韓, 러시아, 中國의 三國이 만나는 豆滿江 國境 都市인 훈춘시를 國境 開放市로 지정하여 외국인의 투자 유치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中國의 훈춘, 러시아의 포시에트, 北韓의 선봉을 잇는 금삼각지대인 豆滿江 하류 지역이 경제 개발 특구로 지정되어 中國의 資源, 韓國의 技術, 北韓의 勞動力, 日本의 資本 등이 결합하여 개발에 성공할 경우 동북 아세아의 다국가간 협력에 의한 지역 경제 개발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中國은 豆滿江을 경계로 하고있는 北韓, 러시아와 국가간 경제체제, 경제 발전수준, 경제정책, 이해 관계가 엇갈려 금삼각지역의 개발이 어렵게되자 다국 경제 특별구 건립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고 UNDP에서도 이 문제를 삼국과 협상하고 있지만 최근 동향으로 보아 다국 경제 특구 건립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블라디보스톡에서 92년 8월 27일 폐막된 동북아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회의 (豆滿江 유역개발 국제회의)에서는 中國과 러시아가 北韓측이 제안한 경제 특구 개발계획을 반대하는 대신 中國과 러시아간 國境 무역을 증

대 시키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北韓측은 앞서 豆滿江 지역에 다국 경계 공동 복구를 설치하자는 中國과 러시아의 제안을 거부하는 대신 3개 지역으로 분리된 경계복구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었다.

中國은 장차 훈춘을 중심으로 한 동북지역이 개발되면 방대한 화물량을 갖게 되고, 이것을 타국의 항구를 빌려서 처리한다는 것은 어려우므로 어떻게 해서라도 훈춘의 최남단에 있는 豆滿江 하류에 방천 항구를 건설하고 러시아와 北韓과의 협의하에 豆滿江 항로를 개척하려고 하는 것이다.

中國측은 1938년 장고봉 사건 이후 豆滿江 하류 운선을 금지 당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제안한 훈춘의 경계 복구 개발 계획을 통해서 동해로 진출하여 태평양 진출권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中國 내륙교통과 연결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北韓이 구상하는 웅기(선봉), 나진, 청진을 잇는 豆滿江 개발 계획은 中國측과는 달리 韓國과 日本의 선진기술과 자본을 도입하여 北韓의 낙후되어 있는 경공업과 소비재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이므로 中國의 진출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삼국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최근 中國 길림성은 1990년 5월과 1991년 6월 두차례에 걸쳐 豆滿江 하류 지역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방천토사포에서 동해에 이르는 17km의 豆滿江 하구의 하상계수가 적고 하폭이 300-800m 이상이고, 소액만 투자하면 2천톤급 선박의 통행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中國은 豆滿江강에 있는 훈춘의 방천 항구를 통한 출해권의 회복을 위해서 러시아와 상당한 협상진전을 벌여 8월 27일의 블라디보스톡 회의에서 中國 대표가 “러시아로 부터 중국 화물선에 대해서 豆滿江 지역의 러시아 영토를 통과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것을 실행으로 옮기려면 北韓과 또 한차례의 협상이 필요하므로 아직 속단할 수 없지만 장차 주변의 국제 여건상 이루어질 것으로 추측된다. 그때는 훈춘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위치로 보아 황금의 삼각지대로 등장할 것이 틀림없다.

특히 훈춘지역은 인근에서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조선족 종업원의 모집이 용이하고, 豆滿江 항해권이 보장된다면 이미 소련 블라디보스톡과 자매 결연을 맺은 韓國의 東海市와 中國간 교통거리가 짧고, 또 대러시아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개발 전망이 밝은 곳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부간 투자 보장 협정이 없었고, 훈춘 인근에 바다로 통할 수 있는 항구가 없고, 대연이나 天津항까지는 기차로 30여시간 이상이 걸리므로 외국기업들이 투자 의향서 교환에서 합작투자로까지 발전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中國측도 豆滿江 항해권이 타결 없다면 러시아와 국경무역을 활성화시킨 후 러시아의 항구를 中國 철도와 연결시켜 이용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튼 훈춘 지구는 21세기의 태평양 시대를 맞이하여 머지않아 황금의 삼각지대로 떠오를 것이 틀림없다.